



보도 일시	2022. 3. 9.(수) 12:00 2022. 3. 1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3. 9.(수)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책임자	부 장 김명준 (052-703-0821)
		담당자	과 장 조윤희 (052-703-082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6차 근로환경조사」 발표

유해·위험 노출 “다소 감소”,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된 경향”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 유해·위험 노출 정도 등 130여 개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조사한다.
- 특히 이번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했던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조사가 시행되어
 -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 조사 결과 ①유해·위험요인(13개*)에 대한 노출, ②노동강도, ③노동시간, ④폭력·차별, 4개 부분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의 1/4 이상 유해·위험요인(13개)에 노출되는 응답자 비중은 모든 요인에서 감소*했으며,
 - * ▲소음: ('17) 21% → ('20) 15% ▲고온: ('17) 24% → ('20) 15%
 - ▲간접흡연: ('17) 13% → ('20) 5% ▲통증 유발 자세: ('17) 51% → ('20) 38%
-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유해·위험요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빠른 작업 속도와 엄격한 마감 시간 요구 등 노동강도는 낮아지고*,

* ▲빠른 속도로 일함: ('17) 25% → ('20) 17% ▲엄격한 마감시간 요구: ('17) 25% → ('20) 18%

- '18년 산안법 개정을 통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감정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다소 감소**했다.

** 나는 항상(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17) 40% → ('20) 38%

○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 및 야간·주말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52시간 이상 근무: ('17) 21% → ('20) 13%, 토요일 근무: ('17) 51% → ('20) 43%

- 이는 '주52시간제'가 '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 연령·성·학력·출신지역·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모욕적 행위 등 차별과 폭력은 대체적으로 감소했다.

* ▲연령차별: ('17) 4.2% → ('20) 3.3% ▲학력차별: ('17) 5.0% → ('20) 2.5%,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17) 5.5% → ('20) 3.2% ▲모욕적 행위: ('17) 3.3% → ('20) 2.2%

- 그러나, 언어 폭력·신체적 폭력·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는 증가*했으며, 폭력·차별 경험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언어폭력: ('17) 4.8% → ('20) 5.4% ▲신체적 폭력: ('17) 0.2% → ('20) 0.3%,

▲성희롱: ('17) 0.2% → ('20) 0.4%

□ 반면, ❶동료와 상사의 지지와 ❷업무재량권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근로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료와 상사의 도움·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는데

* ▲동료의 도움지자: ('17) 69% → ('20) 60% ▲상사의 도움지자: ('17) 64% → ('20) 58%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거리두기 문화로 인해 소통이 적어진 점과 개인화와 경쟁의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자율적 문제 해결과 복잡한 업무 수행 등 업무 수행 중 지적 활동은 다소 감소*했다.

* 지적활동: ▲스스로 문제 해결('17) 63% → ('20) 56% ▲복잡한 업무수행('17) 38% → ('20) 32%

▲업무 중 의견 반영 가능성: ('17) 87% → ('20) 83%

- 또한, 작업 순서·속도·방법 등 결정 권한 역시 축소*되어, 직무자율성이 낮아지고 일이 단순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 결정권한 : ▲일의 순서 ('17) 45% → ('20) 44% ▲일의 속도 ('17) 42% → ('20) 36%

▲일의 방법 ('17) 43% → ('20) 39%

-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평가가 다소 감소('17년 40% → '20년 35%)하고,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는 소폭 증가('17년 10% → '20년 12%)했다.

-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 비중은 감소('17년 73% → '20년 69%)했으며

-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두통·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피로,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 관련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대체로 증가*했다.

* ▲근골격계 건강문제: ('17) 30% → ('20) 42% ▲WHO-5 웰빙 지수: ('17) 59점 → ('20) 57점
(참고) WHO-5 웰빙 지수는 WHO에서 개발한 우울증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50점 이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해석함

- 특히, 임금근로자보다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다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 전망이 좋음 : 자영업자(27%), 임금근로자(38%)-임시근로자(25%)/일용근로자(16%)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 자영업자(62%), 임금근로자(74%)-임시근로자(65%)/일용근로자(58%)

-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직무 자율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다양한 노동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 다음 7차 조사(2023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노동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EU에서 실시한 유럽 근로환경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역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기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세부 내용은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s://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설문지와 원시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일 러 두 기 —

1. 본 자료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3년마다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해의 6월부터 10월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조사는 COVID-19의 영향으로 2차례의 조사중단과 가구 방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약 7개월간, 조사중단 기간 3개월 포함)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별, 연령, 직종, 업종, 종사상 지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한 수치입니다.
3. 근로환경조사의 조사 문항 수는 130여 개가 넘어 문항별 분석 대신 “일의 질(Job quality)” 을 구성하는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1) 노동환경의 유해·위험요인, (2) 사회적 환경, (3) 노동강도, (4) 기술과 재량권 (5) 노동시간, (6) 일의 전망, (7) 건강상태 및 근로 환경 만족도
4.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본 자료는 요약자료이며, 세부 내용*과 상세한 자료 산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 <http://oshr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7가지 항목별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직종별, 업종별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 연구활동 → 근로환경조사 → 조사활용연구
(파일명 :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분석 최종 공표용.pdf)

「 제6차(2020년~2021년) 근로환경조사 」 결과

1. 노동환경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

- ◆ 유해·위험요인(13개)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는 5차(2017년) 조사 대비 모든 유해·위험요인에서 감소
 -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지만, 여성은 간병 등 사람을 이동하거나, 단순 반복동작이 많은 일에 많이 종사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취약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이 가장 취약

□ 근무시간의 1/4이상 동안 진동, 소음 등 13개의 위험요인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차(2017년) 조사에 비해 전체 취업자와 임금 근로자 모두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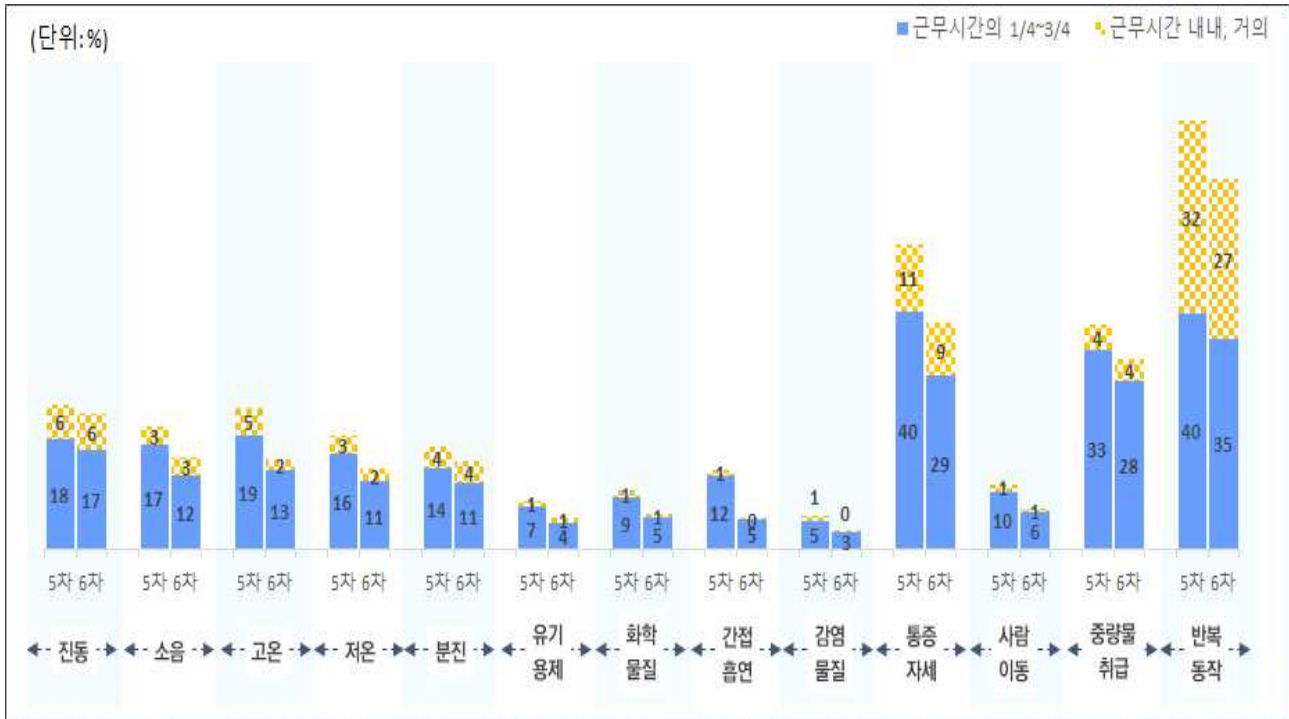
<표 1>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의 비율(%)과 종합 점수(0-100)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환경 위험	1.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24	23	23	22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21	20	15	16
	3.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24	21	15	14
	4.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19	18	13	13
생물 · 화학 적 위험	5. 연기, 흙(용접 흙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17	17	15	15
	6.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8	8	5	5
	7.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10	9	6	6
	8.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13	13	5	5
인간 공학 적 위험	9.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함	6	6	3	3
	10.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51	48	38	35
	11.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김	11	11	7	7
	12.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	38	33	32	28
	13.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72	71	62	60
위험요인 종합 점수(100)		80.4	80.9	85.4	85.6

주1) 근무 시간의 1/4 이상을 해당 요인에 노출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주2) 종합 점수는 노출 정도를 0~100으로 환산한 값으로, 노출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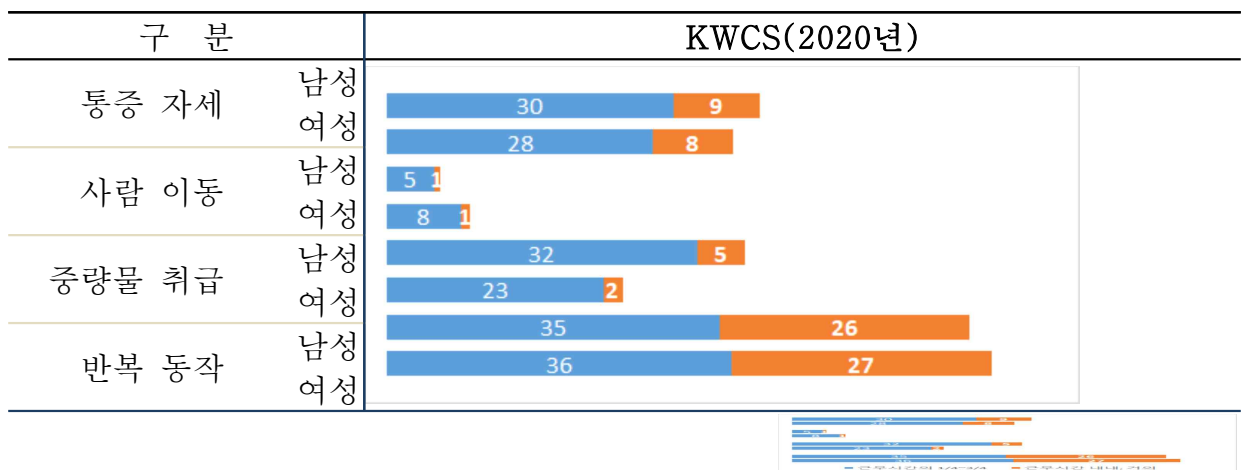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비율(%) 변화



□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지만, 반복동작 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이 위험에 많이 노출

○ 여성이 남성보다 단순하고 반복 작업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한국과 유럽의 성별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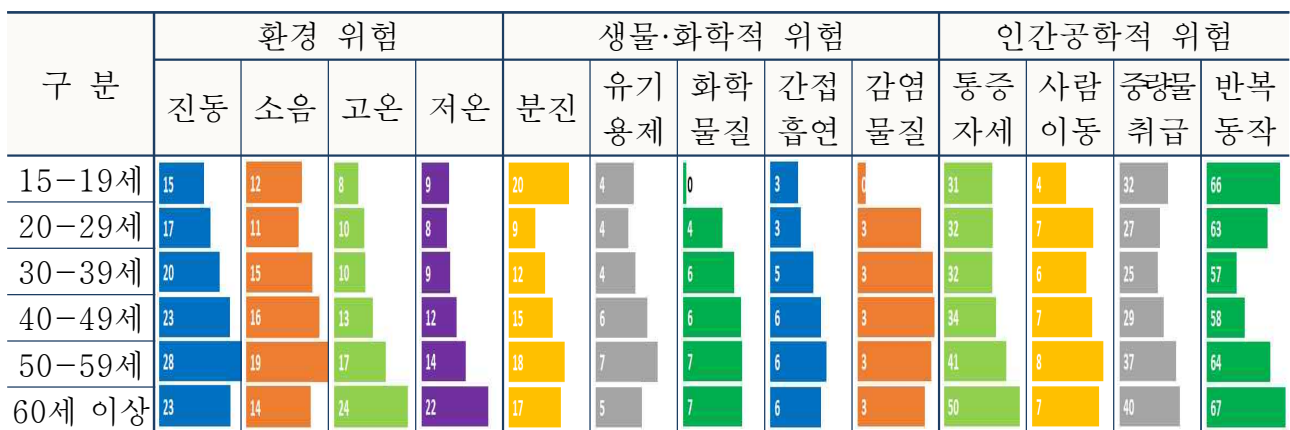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유해·위험요인에 노출이 많으며,
특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취약

○ 60세 이상 취업자의 많은 수가 단순노무종사자인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60세 이상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3,377명으로 전체 단순노무 종사자 7,349명
중 46.0%,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9,906명 중 34.1% 차지

<표 2> 연령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비율(%)

구 분	환경 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 용제	화학 물질	간접 흡연	감염 물질	통증 자세	사람 이동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계	23	15	15	13	15	5	6	5	3	38	7	32	62
15-19세	15	12	8	9	20	4	0	3	0	31	4	32	66
20-29세	17	11	10	8	9	4	4	3	3	32	7	27	63
30-39세	20	15	10	9	12	4	6	5	3	32	6	25	57
40-49세	23	16	13	12	15	6	6	6	3	34	7	29	58
50-59세	28	19	17	14	18	7	7	6	3	41	8	37	64
60세 이상	23	14	24	22	17	5	7	6	3	50	7	40	67



2. 노동 강도

* 3가지 항목으로 측정 : ①일의 양적 요구, ②작업속도 결정요인, ③감정 노동

- ◆ 노동 강도는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감소
- ◆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38%가 항상(또는 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일한다고 응답하여, 제5차 조사(2017년) 대비 약 5% 감소하였으나 높은 수준

- 근무시간의 3/4 이상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취업자, 임금근로자 각각 17%였으며, 취업자의 18%, 임금근로자의 19%가 근무시간의 3/4 이상을 엄격한 마감시간에 맞추어 일한다고 응답하여, 제5차(2017년) 조사에 비해 노동의 양적 요구는 대체로 감소
- 나는 항상(또는 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감정노동자는 취업자의 38%로 제5차(2017년) 조사(40%) 대비 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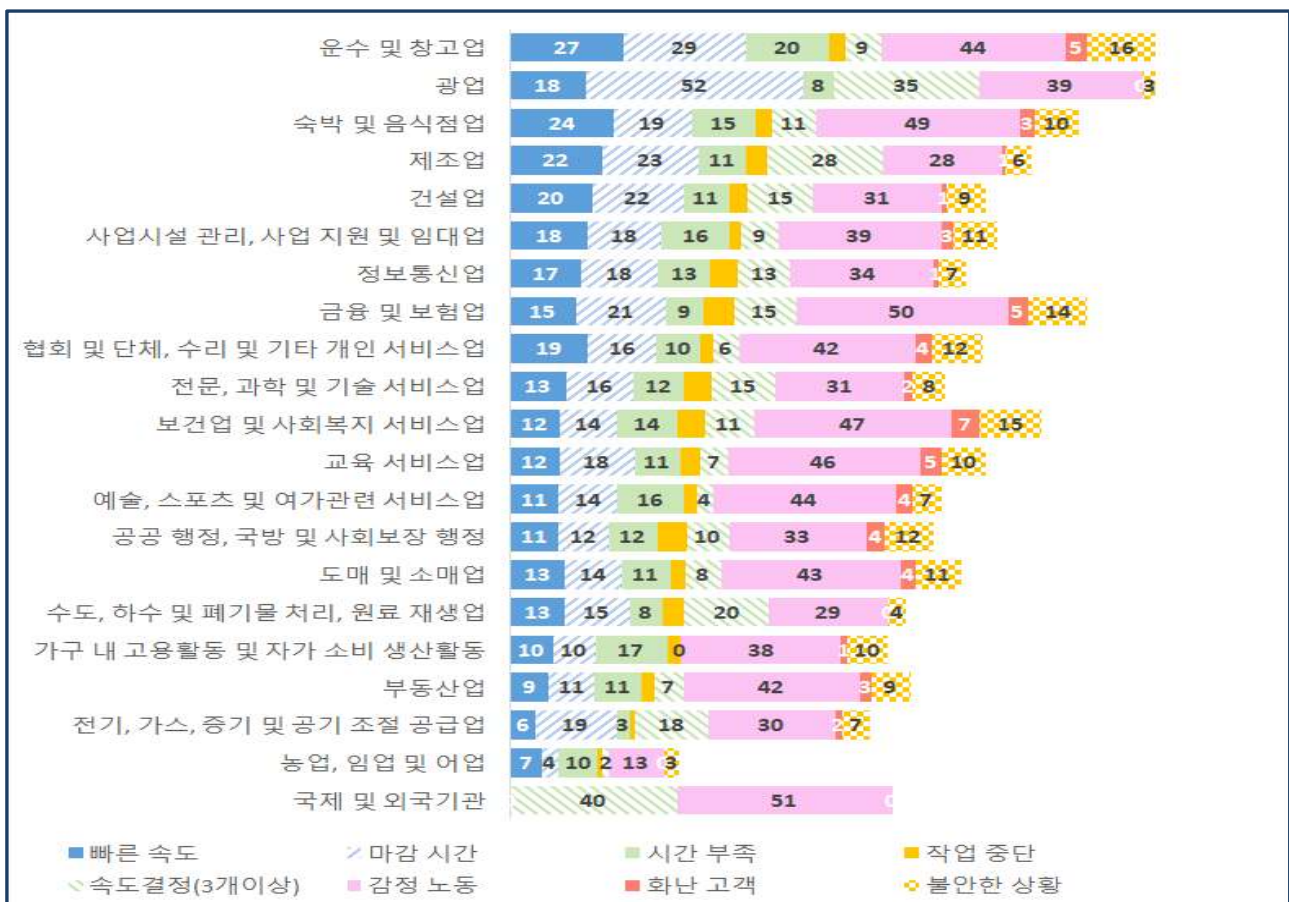
<표 3> 노동 강도(%)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양적 요구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함(근무시간의 3/4 이상)	25	26	17	17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함(근무시간의 3/4이상)	25	27	18	19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14	15	13	13
	잡은 작업 중단으로 업무에 방해가 된다	6	7	5	5
작업 속도 의 결정 요인	아래 작업속도의 결정 요인이 3개 이상 해당	13	16	13	16
	동료가 수행한 업무	25	26	33	34
	고객, 승객, 학생, 환자 등 사람들의 직접적 요구	55	49	52	47
	수치화된 생산 목표나 성과 목표	21	22	20	22
	자동화 라인 속도 또는 제품의 이동 속도	11	12	10	11
	상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45	46	34	35
감정 노동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항상/대부분 그렇다)	40	41	38	38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 (업무시간의 3/4이상)	6	6	3	3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 (업무시간의 1/4이상)	17	17	10	10

- ◆ 운수 및 창고업이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업종
-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은 감정 노동에 따른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

- 운수 및 창고업은 육체적인 일의 양(빠른 속도(27%), 마감시간(29%), 시간 부족(20%))도 많고, 정신적인 요구(감정노동(44%), 화난고객 상대(5%), 불안한 상황(16%))도 높은 업종
- 금융 및 보험업은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50%)가 가장 많은 업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화난 고객 상대(5%)가 가장 많은 업종이며,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47%)와 근무시간 중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15%)도 높게 나타남
- 교육서비스업도 감정노동(46%)와 화난 고객 상대(5%)가 많은 업종

<그림 2> 업종별 노동강도 측정 항목별 경험 비율(%)



3.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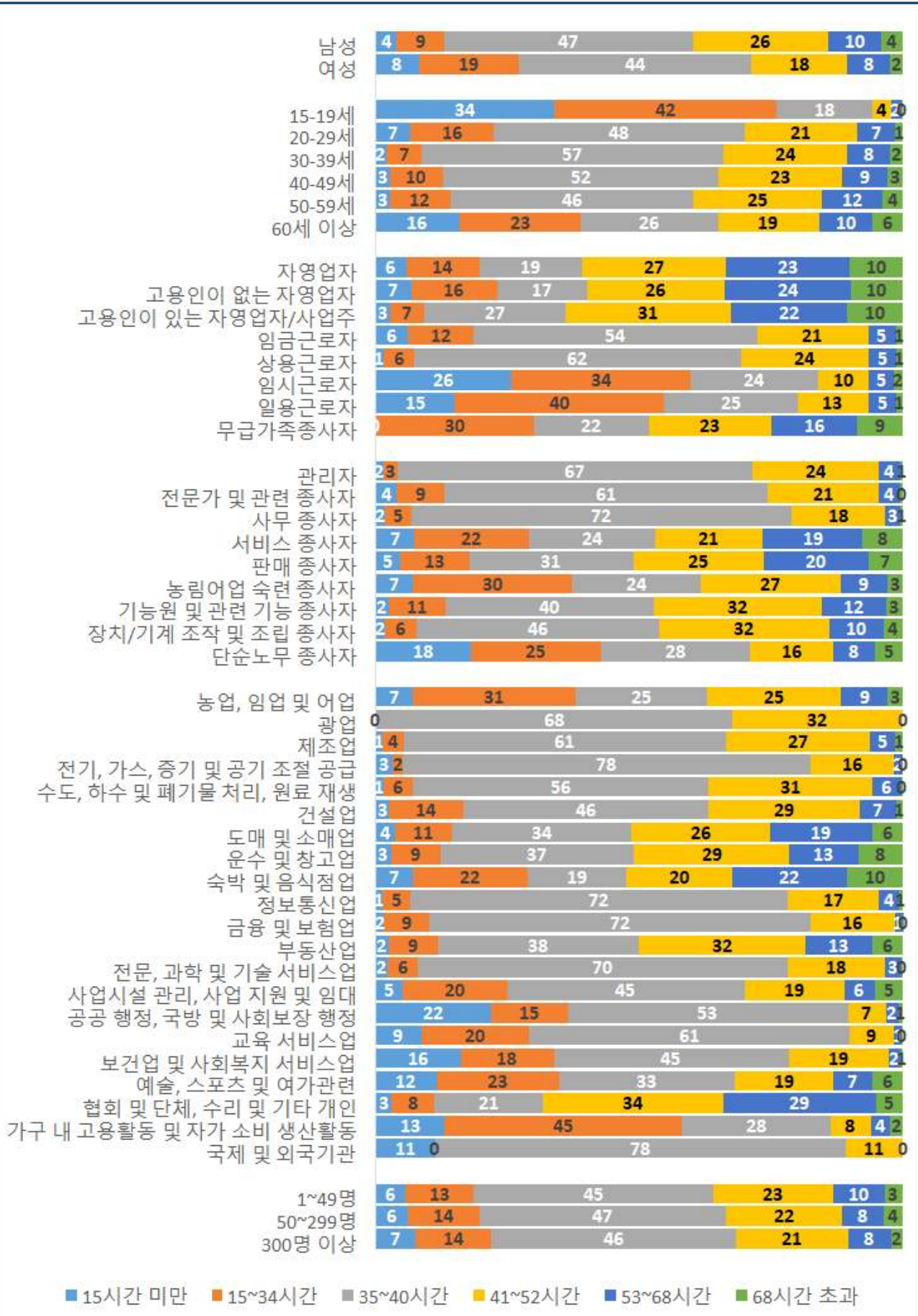
- ◆ 노동시간이 단축(근로기준법 2018.7.1. 시행)됨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수는 크게 감소
- ◆ 밤 근무 등 비정형 근무도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 역시 감소

-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시행)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당 52시간 이상을 일하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3%, 임금근로자의 6%로 제5차(2017년) 조사보다 많이 감소(취업자 38%, 임금근로자 54% 감소)
- 밤 근무(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와, 주말 근무(토요일, 일요일에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를 하는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역시 감소
- 근무시간 감소와 함께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고 응답한 경우 역시 감소하여 근무 유연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4> 노동 시간(%)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장시 간 노동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이상	39	30	28	20
		52시간 이상	21	13	13	6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인 경우		9	8	5	5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		25	21	12	11
비정 형 근무	밤 근무(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한 경우)		10	10	9	10
	일요일 근무(집에서 일한 경우 제외,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한 경우)		21	15	20	16
	토요일 근무(집에서 일한 경우 제외,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일한 경우)		51	41	43	35
	교대 근무		10	12	9	11
유연 성	지난 1년간 정규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 업무를 얼마나 자주 해야 했는지(한 달에 여러 번 이상)		14	14	12	10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의 처리 가능 여부	매우 쉬움	5	2	5	2
		매우 쉬움+비교적 쉬움	47	40	40	31

집단별 노동 시간 분포(%)



4. 사회적 환경

- ◆ 차별은 전체적으로 취업자, 임금근로자 모두 감소하였으나,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성희롱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증가
- ◆ 취업자, 임금근로자가 느끼는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지지는 제5차 조사(2017년) 보다 각각 13%, 9% 감소

- 지난 한달 동안 경험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취업자, 임금근로자 모두 5.4%로 5차(2017년) 조사보다 약 8% 증가, 반면 성적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는 모두 감소
-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경험은 취업자, 임금근로자 모두 0.3%였으며, 성희롱은 취업자의 0.4%, 임금근로자의 0.5%가 경험
- 반면, 왕따/괴롭힘과 학력 차별 등 차별은 모든 항목이 감소
-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60%가 동료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58%가 상사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
- 제5차(2017년) 조사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표 5>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험(%)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반사회적 행동	지난 한 달 동안 경험	언어 폭력	4.8	5.0	5.4	5.4
		성적 관심	0.9	1.0	0.8	0.7
		위협	0.7	0.8	0.7	0.6
		모욕적 행위	3.3	3.5	2.2	2.1
	지난 1년 동안 경험	신체적 폭력	0.2	0.3	0.3	0.3
		성희롱	0.2	0.2	0.4	0.5
		왕따/괴롭힘	0.5	0.5	0.3	0.4
		연령 차별	4.2	5.1	3.3	4.1
		성 차별	2.0	2.3	1.2	1.4
		학력 차별	5.0	6.4	2.5	3.1
		출신 지역 차별	1.3	1.6	1.0	1.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5.5	7.2	3.2	4.1
사회적 지지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9	69	60	60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64	64	58	58

- ◆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과 차별 경험이 많으며 또한, 동료와 상사들로부터의 지지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받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을 제외하고 언어폭력, 성희롱 등 모든 항목에서 폭력과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료들이 도와주고 지지한다고 답한 남성은 취업자의 62%인 반면, 여성은 58%였고, 상사로부터의 지지 역시 남성은 60%인 반면 여성은 56%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

<표 6> 성별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동료와 상사의 지지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벌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동료	상사
계	5.4	0.8	0.7	2.2	0.3	0.4	0.3	3.3	1.2	2.5	1.0	3.2	60	58
남성	5.1	0.7	0.7	2.1	0.3	0.2	0.3	3.1	0.8	2.4	1.0	3.2	62	60
여성	5.8	0.9	0.7	2.4	0.3	0.8	0.3	3.6	1.7	2.6	0.9	3.3	58	56

- ◆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많이 노출
- ◆ 상용근로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임시·일용근로자보다 높음

<표 7> 종사상 지위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경험(%)

구 분	폭력(지난 한달 동안)				폭력(지난 1년 동안)			차별(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연령	성	학력	출신 지역	고용 형태
계	5.4	0.8	0.7	2.2	0.3	0.4	0.3	3.3	1.2	2.5	1.0	3.2
자영업자	5.2	1.0	0.9	2.5	0.3	0.4	0.1	1.0	0.3	0.4	0.3	0.4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6	0.9	0.9	2.5	0.4	0.4	0.1	0.9	0.3	0.3	0.3	0.4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4.0	1.2	1.0	2.5	0.1	0.3	0.0	1.1	0.2	0.6	0.3	0.3
임금근로자	5.4	0.7	0.6	2.1	0.3	0.5	0.4	4.1	1.4	3.1	1.2	4.1
상용근로자	5.7	0.7	0.7	2.1	0.3	0.5	0.4	3.7	1.6	3.6	1.3	4.0
임시근로자	4.6	0.8	0.5	2.1	0.1	0.5	0.3	5.0	0.8	1.6	0.6	4.5
일용근로자	4.5	0.5	0.8	1.6	0.1	0.3	0.3	6.1	0.8	1.4	1.1	5.5
무급가족종사자	5.3	0.5	0.8	3.5	0.0	0.3	0.0	0.4	0.0	0.0	0.0	0.2

5. 기술과 재량권

- ◆ 기술과 재량권은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대부분의 모든 항목에서 감소, 직무자율성이 낮아지고 일이 단순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냄

-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우 등 지적인 활동은 모든 항목에서 제5차(2017년) 조사보다 감소하여 일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의 순서, 작업 속도, 작업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자율성 역시 제5차(2017년) 조사보다 감소
- 또한, 산업안전보건에서 중요한 교육과 훈련의 경험은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의 67%, 임금근로자의 76%가 건강과 안전관련 정보 제공을 잘 받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제5차(2017년) 조사보다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

<표 8> 기술과 재량권(%)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지적 활동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63	59	56	54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	38	41	32	35
	새로운 것을 배운다	30	32	29	30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항상/대부분/가끔 그렇다)	87	86	83	81
결정 권한	일의 순서	45	41	44	40
	작업 속도 또는 작업률	42	38	36	33
	작업 방법	43	39	39	36
	같이 일할 사람(동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항상/대부분 그렇다)	44	38	38	35
조직 참여	작업 목표가 결정되기 전에 나의 의견을 묻는다(항상/대부분 그렇다)	43	40	42	41
	부서,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절차 개선에 참여한다(항상/대부분 그렇다)	42	38	38	36
	내가 하는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렇다/대부분 그렇다)	45	38	46	41
교육/훈련	사업주가 제공, 비용을 대거나 스스로 비용을 지불한 교육(훈련) 경험	31	33	28	29
	동료나 작업 관리자의 현장 교육/훈련(OJT)	16	20	13	16
정보 제공	건강과 안전 관련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제공(매우 잘 받는다/잘 받는 편이다)	63	68	67	76

- ◆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10대와 60세 이상이 기술과 재량권이 낮고, 교육 훈련과 안전보건 정보 제공도 적게 받고 있어 위험
 - 특히, 60세 이상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서도 안전보건 정보제공은 받지 못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계층

<표 9> 성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시 내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시 의견 반영
계	56	32	29	83	44	36	39	38
남성	61	37	31	85	46	39	41	41
여성	51	26	26	82	42	33	36	32

구 분	조직 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교육(OJT)	
계	42	38	46	28	13	67
남성	46	42	49	32	14	69
여성	37	32	41	24	11	65

<표 10> 연령별 기술과 재량권(%)

구 분	지적 활동				결정권한			
	스스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수행	새로운 것 배움	업무시 내 생각 반영	일의 순서	작업속도/작업률	작업 방법	동료선택시 의견 반영
계	56	32	29	83	44	36	39	38
15-19세	34	8	24	62	39	24	31	15
20-29세	49	32	34	78	37	29	33	29
30-39세	60	43	40	86	45	37	39	39
40-49세	62	41	35	87	45	37	40	45
50-59세	58	31	25	85	44	37	39	41
60세 이상	50	14	11	80	47	40	43	27

구 분	조직 참여			교육/훈련		안전 보건 정보 제공
	작업 목표 결정 전 나의 의견 물음	조직 구성/업무 절차 개선 참여	내 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 미침	교육(훈련) 경험	현장 훈련/교육(OJT)	
계	42	38	46	28	13	67
15-19세	19	15	20	11	19	56
20-29세	34	30	36	22	16	72
30-39세	44	40	47	34	17	74
40-49세	50	45	51	35	14	70
50-59세	45	41	50	29	11	66
60세 이상	31	27	40	17	8	55

6. 직업 전망

- ◆ 직업 전망을 좋게 보는 취업자는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5%p(13%) 감소
- ◆ 반면, 6개월 안에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취업자는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8%p(20%) 증가

- 취업자의 35%, 임금근로자의 38%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응답,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각각 13%, 10% 감소
- 향후 6개월 안에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취업자의 12%, 임금근로자의 13%로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각각 20%, 18% 증가
- 직업전망과 직업안전성이 나빠진 것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가 받은 경제적 영향과 임시, 일용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표 11> 직업 전망(%)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직업 전망	나의 일자리는 전망이 좋다	40	42	35	38
직업 안전성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현재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10	11	12	13
사업장 규모 감소	내가 일하는 직장(사업체)은 지난 3년 동안 직원 수가 감소했다 [2020년 신규 문항]	—	—	14	14

- 일자리 전망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제5차(2017년) 조사에서 48%가 좋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제6차 조사에서 13%p 감소한 35%로 나타나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향후 6개월 내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직업안전성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제5차(2017년) 조사에서 10%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2%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표 12> 종사상 지위별 직업 전망(%)

구 분	직업 전망 : 일자리 전망 좋음		직업 안전성 : 향후 6개월 내 일자리 잃을지 모름	
	제5차 조사	제6차 조사	제5차 조사	제6차 조사
계	40	35	10	12
자영업자	34	27	8	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	25	8	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8	35	8	10
임금근로자	42	38	11	13
상용근로자	47	43	10	10
임시근로자	25	25	16	21
일용근로자	22	16	10	22
무급가족종사자	19	21	5	11

7. 건강상태와 근로환경 만족도

-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 두통, 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 수면장애, WHO-5 웰빙 지수 모두 제5차 조사(2017년)보다 나빠짐

-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취업자의 69%, 임금근로자의 72%가 “좋은 편” 이라고 응답
 - 제5차(2017년) 조사에서 전체 취업자의 73%, 임금근로자의 76%가 좋은 편이라 응답한 것에 비해 감소
-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문제)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전체 취업자의 9%, 임금근로자의 8%) 역시 증가
-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중 지난 1년간 한 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42%, 임금근로자의 38%
 - 제5차(2017년) 조사에서 취업자의 30%, 임금근로자의 26%였던 것과 비교할 때, 취업자는 40%, 임금근로자는 46%가 증가한 수치
- 한편,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각각 19%가 지난 1년 동안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5%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 전신피로를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취업자의 26%, 임금근로자의 24%로 제5차(2017년) 조사와 비교할 때 모든 항목에서 증가
- 또한,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동안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한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의 수면 장애를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취업자의 17%, 임금근로자의 15%

□ WHO-5 웰빙 지수는 전체 취업자가 57점, 임금근로자가 58점으로 제5차(2017년) 조사 대비 다소 점수가 낮아짐

* WHO-5 웰빙 지수: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에 고안한 지수로 주관적인 심리학 적 복지를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문지 중 하나로, 주로 우울증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 일반적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하이면 우울증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논문에 따라 28점을 우울증으로 제시하기도 함)

<표 13> 주관적 건강 상태(%)

구 분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주관적 건강상태(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73	76	69	72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문제) 있음	5	4	9	8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는 경우	13	12	4	4
	지난 1년간 몸이 아픈 데도 나와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17	15	12	11
	근골격계 건강 문제 (아래 3가지 증상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30	26	42	38
	요통(허리 통증)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11	9	29	26
	상지(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근육통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4	21	33	29
	하지(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근육통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16	13	18	15
	두통, 눈의 피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13	13	19	19
	불안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3	3	5	5
	전신피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3	21	26	24
수면 장애	수면 장애 (아래 3가지 문항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15	15	17	15
	* 아래 3가지 문항에 “매일”, “한주에 여러번”, “한달에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잠들기 어렵다	12	11	11	10
	자는 동안 자주 깬다	11	11	14	13
	자고 일어나도 지치고 피곤하다	—	—	19	18
WHO -5 웰빙 지수	WHO-5 웰빙 지수 (아래 5개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59	60	57	58
	* 아래 5가지 문항에 각각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다	38	40	39	40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다	43	45	45	47
	나는 적극적이고 활기차다	40	42	40	42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푹 쉬었다는 느낌이 든다	37	39	29	30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32	34	22	23